

◆ 미국 LNG 기지 조성산업, 가스가격 하락으로 추진 불투명

최근 미국에서 계획되고 있는 20여 건의 LNG 수입 터미널 증설 프로젝트가 철회 또는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가스 가격의 장기 하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천연가스 수요의 확대에 따라 상승세를 나타냈던 미국의 가스가격은 2000년 중 100만 BTU당 약 10달러 수준으로 상승한 바 있다. 이에 엔론, 엘파소, CMS에너지 등 미국의 주요 에너지 회사가 잇달아 LNG 터미널의 증설 계획을 수립, 추

진하였다. 그러나 2001년 중반 이후 IT 산업의 침체와 테러 사태의 영향으로 가스 가격이 급락하여 현재는 100만 BTU당 2달러대 전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에너지 회사들은 LNG 터미널 신·증설 사업의 채산성 확보가 가능한 가격대를 약 7~8달러로 설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나, 가스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다수의 프로젝트가 상업성을 상실함에 따라 최근 프로젝트 자체의 수정을 모색하고 있다.

【金 廷 勳】